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한라산 숲학교 (3)도순초등학교

숲길 걸으며 ‘휘둥그레’... 놀이하며 ‘까르르’

남원읍 고살리숲길 체험
짚라인 등 타며 숲 만끽
“올해 첫 현장체험활동
너무 설레고 즐거웠어요”

숲은 치유의 공간이다. 숲에서 마시는 맑은 공기와 겹겹이 둘러싼 나무는 때로 깊은 위로가 된다. 숲이 주는 위로로는 숲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숲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한다. 숲에서 마음껏 뛰놀며 또 양보하며 숲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법, 다양한 생명이 공존하는 숲을 소중히 인식하는 법.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숲과 친해지고 또 배운다. 아이들에게 숲은 치유이자 놀이의 공간이다.

도순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은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고살리숲길을 찾아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와 함께하는 숲 학교’에 참여했다.

숲연구소품지락 김난희 대표는 이날 아이들에게 숲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위해 새벽부터 나서 ‘숲 놀이터’를 꾸렸다. 고살리숲길 입구 한켠에 위치한 작은 공간에 들어서자 짚라인, 해먹 등 휴양지에 있을 법한 각종 놀이기구들이 설치돼 있었다.

한창 프로그램 준비를 마칠 즈음 마침 아이들이 도착했다. 설렘과 긴장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이날은 초



지난 23일 서귀포시 남원읍 고살리숲길에서 열린 숲 학교에 참여한 도순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짚라인을 타며 숲 놀이를 즐기고 있다. 강다혜기자

등학교 1학년인 이 아이들의 ‘첫 현장체험 학습’이라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아이들은 김 대표와 함께 ‘숲대문을 열어가라’ 노래를 부르며 숲에 입장했다. 노래를 부르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 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졌다. 우선 아이들은 나만의 ‘자연 이름’을 지었다. 도토리, 참나무, ‘도토리송이’, 갈색과 초록색을 더해 ‘갈초’라는 각자의 자연 이름을 지으며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숲의 일부임을 배웠다.

이후 아이들은 놀이기구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숲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았다. “도전해볼래요”라며 처음 타보는 짚라인과 스윙 그네가 무섭지만 도전해보는 아이, “전 뛰는 게 좋아요”라며 그저 계속 숲을 뛰어다니는 아이, “전 누워있는 게 좋아요”라며 해먹에 누워 가만히 하늘을 보는 아이.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숲에서 자유를 만끽했다.

숲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뒤 본격적으로 숲길을 걸었다. 그저 숲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손엔 작은 종이바구니가 달렸다. 아이들은 땅에 떨어진 자연물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종이 바구니에 골라 넣었다. 도토리, 낙엽, 나뭇가지, 꽃으로 종이 바구니가 가득찼다.

꽃자왈에 도착한 아이들은 본인이 주운 작은 자연물을 이용해 땅, 바위, 나무 뿌리 등에 그림을 그려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난희 대표는 “숲이라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으면 한다”며 “코로나19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오늘날만큼은 아이들이 자연의 일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주 초정밀 소방관제 플랫폼 구축 본격

도, 23일 사업 착수보고회
사고 대응 골든타임 확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사고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119종합상황실, 소방서, 119센터 등), 자치경찰단, 행정시 등 이용기관 관계자, 사업자, SK T맵 등 사업 참여기업 등 총 3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실시간 상황 전파와 지휘·협조를 지원하는 일원화된 실시간 통합 지휘관제 체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협업 과제로 공모 선정(특교제 3억원)돼 사업을 추진

하게 됐다.

사업 수행자는 지난해 9월 오픈한 ‘초정밀 실시간 버스위치 정보 서비스’ 시스템의 기술적 요소 분석을 통한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구성과 각 부서 및 참여기업 간 역할분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응급구조 시 소방대원들의 현장 위치정보를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과의 연계방안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통해 초정밀 위치기반으로 실시간 출동차량에 대한 통합관제 체계 구축, 신고자 휴대폰으로 실시간 차량 이동 정보 제공, 안전·돌발 상황·출동 지연 등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태운기자

“갑질 특수교사 엄벌하라” 제주교육공무직 성명

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갑질 특수교사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 9월 23일 제주도에 한 특수교육실무원이 특수교사 A씨에게 상시적이고 악의적인 갑질을 당해 도교육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며 ▷3시간 동안 원하는 글이나 답변이 나올 때까지 책상에 앉힘 ▷조퇴 요청에 “이러니 교육공무직 뺐을 때 체력검사를 해야한다”고 발언 ▷특수아동사 관련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은 들어도

이해 못할 거예요”라고 비하 등의 신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알리자 학교 측은 피해자와 A씨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했다”며 “하지만 A씨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 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이 특수교육실무원은 수치심과 모멸감 등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를 가게 됐고, 병원에서는 1개월 이상의 요양과 업무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조속히 조사하고 괴롭힘 행위자를 엄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제주지역 정수장 16곳 청결상태 ‘안심’

도, 전수조사결과 유충 미발견... “강정정수장은 정상화 최선”

속보·최근 서귀포시 일대서 잇따라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로 수질관리 체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다행히 문제가 된 강정정수장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아직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2-23일 강정정수장을 제외한 도내 정수장 16곳의 청결상태를 조사한 결과, 유충 등 소형생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도내 정수장 급·배수계통 내 소형생물 서식 및 청결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강정정수장 운영 조건과 유사한 공칭이나 계통을 갖고 있는 도련·별도봉·어승생·오라·월산 정수장 5곳을 비롯해 남원·서광·애월·유수암·추자·조천·금악·한림·구좌·토평·회수정수장 등 11곳을 전수조사했다.

앞서 이들은 유충 발생 첫 신고가 이뤄졌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강정정수장 계통 수도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상시 용천수만 수원으로 활용된 강정정수장에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강정천 표류수가 유입되면서 하천에서 서식하는 유충 등이 유입·번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강정정수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8일부터 강정정수장 주변 취수

탑 조사와 정수장 유출부에 거름망 설치, 정수장 계통 배수지 유입관에 차단망 설치 등 유충 유입차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18-22일 5일간 도내 수돗물 유충 의심 민원은 36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우선 발견된 유충의 중판별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에 분석을 의뢰 중이다. 최초 발견된 유충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에 현미경 사진 분석결과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갈따구 유충’으로 판단됐으며, 유충종류 유전자 검사결과 26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갈따구 유충 대책 상황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백균탁기자

“송악산 개발 중단은 난개발 면죄부 아냐”

도내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송악산 개발 중단이 제주의 난개발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25일 원지사가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난개발 우려에 대해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함에 따른 것이다.

송악산 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발언이 진심이라면 원 지사는 개발사업으로 서

로 상처 입고 갈라선 지역주민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며 “원 지사가 진정 난개발을 막겠다는 생각이라면, 독단적 도정 행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주 난개발을 즉각 중단하는 등 도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제주도는 여전히 제2공항, 대명동물테마파크,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해상풍력사업 등 열거하기 힘든 많은 지역서 주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원 지사는 제주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목소리를 듣는 등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다혜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행사

제주숲이 키운 풍요로운 선물을 만나다.

2020 제주·임산물 홍보대전

일시 2020. 10. 31(토) 10시 ~ 16시 장소 새별오름주차장 일원 주최/주관 SJ 제주시산림조합 후원 제주시

임산물 직거래장터

라이브커머스 판매

표고버섯, 고사리, 더덕, 도라지, 목이버섯

10/29(목) 저녁7시

YouTube facebook 생중계